1200년 이어진 '불멸의 법등' 전국 순례

日 천태종조 사이쵸 대사 원적 기념

박영빈 객원기자

1200여년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멸의 법등' 이 전국순례에 나선다. 불멸의 법등은 일본 천태종의 종조인 사이쵸(最澄) 대사가 점등한 이래 계속해서 켜져 온 등불이다. 4월 3일 일본의 '교토신문' '아사히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전국행각의 시작인 분등식(分燈式)을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사가(滋賀)현에 소재한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 히에이산(比叡山) 엔랴쿠지(延曆寺). 788년, 사이쵸(最澄) 대사가 창건한 이래 1200여 년간 일본불교의 산실로 불려왔다. 1994년에는 이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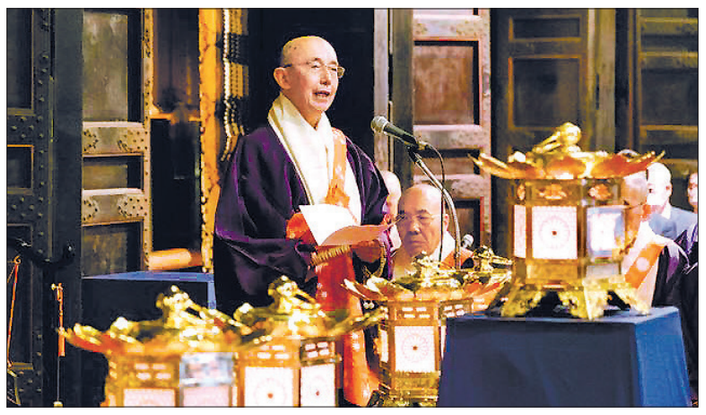
이 엔랴쿠지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불멸의 법등' 이다. 엔랴쿠지의 본당인 근본중당(根本中堂)에 켜져 있는 이 등불은 799년 사이쵸 대사가 본존인 약사여래불 앞에 점등한 것이다. 당시 사이쵸 대사는 "미래의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불법의 등불이 밝게 이어지리라"라고 서원하며 등을 공양했다고 전한다. 이래로 사이쵸 대사의 제자들은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혀왔다. 현재도 매일 두 차례 유채기름을 부어 불을 지켜오고 있다.

한편 일본 천태종은 2021년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멸의 법등 전국행각' 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종무총장인 토다 도유

799년 점등 후 제자들이 지켜와
4월 3일 분등식 후 전국 사찰로
"무명 속 희망 등불 되길" 서원

스님은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히고, 법화일승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평화롭길 기원한 사이쵸 대사의 서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4월 2일 오전 엔랴쿠지 근본중당에선 전국행각에 앞서 등불을 나누는 분등식이 봉행됐다. 엔랴쿠지 대중스님들과 기념법회위원회의 임원 등 50여 명의 사부대중들이 분등식에 참례했다. 엔랴쿠지 측은 "전국 교구의 대표자나 사전신청을 통한 일반 참가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전염예방을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엔랴쿠지는 분등식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근본중당에서 분등된 '불멸의 법등' 을 소개하는 타다 도유 천태종 종무총장 스님.
사진출처=불멸의 법등 전국행각 공식 페이스북

대중스님들이 엄숙하게 예불을 올리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불 앞에 켜진 사이쵸 대사의 '불멸의 법등'에서 채화된 불이 수미단에서 내려왔다. 불은 미리 준비된 4개의 등을 새롭게 밝혔다. 4개의 등은 일본 열도의 주요한 네 섬을 각각 주유하며 일본전체에 소재한 2천 6백여 개소의 천태종 사찰들을 행각한 후 다시 엔랴쿠지로 돌아올 계획이다.

분등식의 법주를 맡은 토다 도유 스님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 차별이 싹트고 있다. 사이쵸 대사의 서원을 본받아,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길 바란다"며 분등식의 의의를 말했다.

기념법회위원회 측은 "행각의 시작이 가능한 즉시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기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아, 현재로선 약 2달 간 분등한 등불을 엔랴쿠지에서 보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황청, "자비 · 사랑으로 인류 봉사"

종교간대화평의회, 봉축메시지
"자비와 우애를 위한 기회되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로마 교황청이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청은 메시지를 통해 "두 종교(가톨릭과 불교)의 자비와 사랑으로 상처입은 인류에 봉사하자"고 전했다.

로마의 '바티칸 뉴스' 는 4월 2일 보도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25번째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메시지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평의회 의장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Miguel Ángel Ayuso Guixot) 추기경과 사무총장 코디투왓쿠 칸카남 인두닐 자나카(Kodithuwakku K. Indunil J.) 몬시뇰의 서명이 담겼다.

미겔 추기경은 메시지에서 "두 종교가 말하는 자비와 사랑에 대한 높은 가치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상처 입은 인류에게 봉사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고 왕위를 내려놓은 싯다르타 왕자와 아시시 성의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인용해 "세속을 떠난 두 성인의 행위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자비와 사랑의 문화를 육성하고 인류에 헌신하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밝혔다.

평의회는 이어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인 연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여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평의회는 10월 15일 예정된 국제 교육대회에 불교 공동체들을 초대키로 했다.

특히 평의회는 "전 세계인들이 희망, 자비, 그리고 사랑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와 간병인을 위해 기도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평의회는 지난 24년간 국제 베삭데이(UN기준 음력 4월 15일)에 맞추어 봉축메시지를 발표해 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태국을 공식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태국불교의 최고지도자인 상가라자 암보른 암바로 스님과의 대담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이웃으로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상호 연결성이 모든 이를 축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안면 보호막 쓰고 탁발하는 태국 스님들

코로나19에 승가 문화 변화
유튜브 통해 위생장비 제작
탁발 대신 배달공양 의견도

태국 스님들이 코로나19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 마스크와 안면 보호막을 만들어 화제다. 4월 2일 해외불교전문 온라인 뉴스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는 감염 예방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태국 스님들을 보도했다. 뉴스가 보도된 4월 2일 당시, 태국에는 총 1877명의 확진자와 15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방콕 북쪽 논타부리주에 위치한 맛찬티카람(Matchantikaram)사원의 스님들은 탁발을 나갈 때 특별한 장비를 착용한다. 가사와 동일한 샤프란 색의 마스크와 얼굴 전체에 써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안면 보호막이 대표적이다.

탁발을 나온 솜 얀나숫토(Somkiat Yannasuttho) 스님은 "시판되는 마스크를 쓰고 탁발을 나가는데 마스크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불편함이 컸다. 특히 코로나19는 안구의 비말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도 있음을 알게 돼 불안감을 느꼈다"고 직접 장비를 만들게 된 계기를 말했다. 스님은 "비말감염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찾던 중 유튜브에 올라온 제작법을 보고 배워 3일전 안면보호막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투명한 안면보호막은 대중스님들이 함께 투명시트와 스펀지, 고무 밴드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직접 만든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탁발하는 스님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이런 가운데 태국 불교계가 여전히 매일 아침 탁발을 하는 것과 관련, 불교계 일각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탁발문화도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 재가불자는 SNS를 통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하는 현재 상황에서, 길가에 오랫동안 서있어야 하는 탁발 대신 음식을 사찰로 배달해 스님들께 공양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많은 공감을 받으면서 사찰에 음식 배달이 가능한 업체들을 소개하는 글들이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법회나 설법과 같은 신행활동도 SNS를 통한 온라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약 40만 여개의 사찰과 30여 만 명의 스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태국은 3월 26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 모든 장소에서 집회 금지, 필수 생필품 취급점 이외의 점포는 4월 말까지 휴업해야 한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3월 25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태국은 코로나19 발발의 전환점에 있으며 상황은 훨씬 나빠질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의 연설 후에도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해 며칠 동안 추가 조치가 취해졌다.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인 푸켓은 월요일에 폐쇄되어 생필품 수송선을 제외한 모든 교통편이 모두 중단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중국 불교계, 일본에 마스크 4만장 보시

개산조 은원융기 선사 인연
"서로 의지해 버티자" 격려

중국 푸젠성(福建省)불교계가 교토의 만푸쿠지(萬福寺)에 마스크 4만장을 보시했다. 4월 2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교토신문' 과 함께 중국과 대만 언론들은 불교로 다져진 양국의 우의에 대해 보도했다.

교토부 우지시(宇治市)에 소재한 만푸쿠지는 황벽종(黃檗宗)의 대본산이다. 1654년 일본의 거듭된 초청으로 일본에 온 명나라의 은원융기(隱元隆琦) 선사가 1661년 창건한 사찰로, 원래 은원선사가 주석했던 푸젠성 황벽산(黃檗山)의 완푸쓰(萬福寺)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황벽종의 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만푸쿠지와 푸젠성의 불교단체, 사찰들이 연합해 발족한 '황벽문화촉진회' 는 은원선사와의 인연을 기리기 위해 최근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일본을 위해 4만장의 마스크를 모아 만푸쿠지에 전달했다.

지난 2일 만푸쿠지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코로나 19 종식기원 법회에서 만푸쿠지 대중스님들은 〈대반야경〉을 독송하고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했다. 이어진 마스크 전달식에서 황벽문화촉진회의 첸시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의지해 버티자"고 말했다. 마스크가 담긴 상자에는 은원선사의 어록에 실린 "동쪽과 서쪽이 함께 비추니, 도의를 서로 지탱한다(東西互照, 道義撐持)"는 문구가 하나하나 붙어 있었다.



만푸쿠지에 마스크를 전달하는 중국 황벽문화촉진회. 사진출처=교토부 공식트위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콘도 하쿠도 황벽종 관장은 "이를 계기로 중일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감사를 전했다. 만푸쿠지측은 "보시 받은 4만장의 마스크중 2만장은 각각 교토시와 우지시에, 1만장은 만푸쿠지의 지역주민들에게 나누고, 남은 것은 장차 계획을 세워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